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장 영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 비교

-연령과 성별을 중심으로-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라 미 혜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 비교  
-연령과 성별을 중심으로-

장 영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라 미 혜

# 인 준 서

라미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정보화 인프라의 확대로 유아기부터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대상의 특징을 고려한 효과적인 인터넷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유아의 연령에 따라 인터넷 안전의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1. 유아의 연령에 따라 인터넷 안전 의식의 ‘책임’영역은 차이가 있는가?

1-2. 유아의 연령에 따라 인터넷 안전 의식의 ‘네티켓’영역은 차이가 있는가?

1-3. 유아의 연령에 따라 인터넷 안전 의식의 ‘과몰입’영역은 차이가 있는가?

2: 유아의 성별에 따라 인터넷 안전의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1. 유아의 성별에 따라 인터넷 안전 의식의 ‘책임’영역은 차이가 있는가?

2-2. 유아의 성별에 따라 인터넷 안전 의식의 ‘네티켓’영역은 차이가 있는가?

2-3. 유아의 성별에 따라 인터넷 안전 의식의 ‘과몰입’영역은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공립 유치원 4개원의 만 4세 5학급과 만 5세 5학급의 유아 23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넷 안전의식 검사도구는 김

승욱(2008)의 인터넷 안전에 대한 그림도구를 활용하여 개별적인 면접방법으로 연구자와 각 학급의 담임교사들이 진행하였다. 검사방법 및 시간의 적절성 및 면접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만 4세 유아 3명과 만 5세 유아 4명을 대상으로 2010년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예비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연구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는 2010년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이 차이가 있는지를 연령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첫째, 연령에 따른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이 하위 영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책임영역에서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과,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부모님(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 인터넷에 있는 이야기는 모두 믿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만 5세 유아가 만 4세 유아에 비해 높은 인터넷 안전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티켓영역에서도 인터넷에서 서로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을 사용해도 되는지, 인터넷에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말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만 5세 연령의 유아들이 만 4세 유아들에 비해 높은 인터넷 안전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몰입영역에서는 만 4세와 만 5세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문항별 분석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인터넷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어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만 5세 유아들이 보다 높은 인터넷 안전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인터넷이 재미있으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지내지 않고 인터넷을 해도 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만 4세 유아들이 만 5세에

비해 더 높은 안전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이 하위 영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책임영역에서 인터넷을 할 때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 등을 물어보면 알려주어도 되는지에 대한 것과 인터넷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라고 하면 그대로 설치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인터넷 안전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티켓영역에서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을 사용해도 되는지 묻는 문항에서만 여아들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남아보다 높은 안전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몰입영역에서는 성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부 하위문항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해진 시간이 되면 더 하고 싶어도 그만 해야 한다는 질문과 인터넷이 재미있으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지내지 않고 인터넷을 해도 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인터넷 안전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목 차

논문개요

표목차 .....	iii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7
3. 용어의 정의 .....	7
II. 이론적 배경 .....	8
1. 유아와 인터넷 환경 .....	8
2. 유아의 인터넷 사용 실태와 그에 따른 영향 .....	9
3.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 .....	15
III. 연구방법 .....	20
1. 연구대상 .....	20
2. 연구도구 .....	20
3. 연구절차 .....	21
4. 자료분석 .....	23
IV. 결과 및 해석 .....	24
1. 유아의 연령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비교 .....	24
2. 유아의 성별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비교 .....	30

V. 결론 및 논의 .....	36
1. 결론 및 논의 .....	36
2. 제언 .....	43
참고문헌 .....	45
ABSTRACT .....	50
부록 1.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 측정 기록지 .....	53
부록 2. 남아용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 측정도구 .....	54
부록 3. 여아용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 측정도구 .....	56

## 표 목 차

-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 <표 2> 그림을 활용한 인터넷 안전의식 측정도
- <표 3> 연령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 <표 4> 연령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책임영역
- <표 5> 연령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책임영역(하위 문항)
- <표 6> 연령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네티켓영역
- <표 7> 연령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네티켓영역(하위 문항)
- <표 8> 연령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과몰입영역
- <표 9> 연령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과몰입영역(하위 문항)
- <표 10> 성별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 <표 11> 성별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책임영역
- <표 12> 성별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책임영역(하위 문항)
- <표 13> 성별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네티켓영역
- <표 14> 성별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네티켓영역(하위 문항)
- <표 15> 성별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과몰입영역
- <표 16> 성별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과몰입영역(하위 문항)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는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변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이 강조되는 지식 정보화 사회이다. 정부는 정보화 사회로의 성공적인 진입과 지식 기반의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 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교육을 강조하여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10년 5월 현재 정보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3세 이상 국민 중 인터넷 사용자는 37,010천명으로 2000년 19,040천명보다 10년여 사이에 무려 2배로 그 수가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감율은 7.1%로 나타났고, 인터넷이용률은 77.8%로 조사되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현대인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의 제약 없는 인터넷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신문이나 책·광고물·라디오·텔레비전·휴대폰 등의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디어 없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디어를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터넷 사용의 일반화가 확대됨에 따라 심지어 요즘의 아이들은 넷키즈라고 부른다. 2010년 정보화 실태조사에 의하면 만 3~5세 유아의 인터넷이용률은 63%(840천명)인 것으로 보고하였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이는 만 3~5세 유아 10명 중 약 6명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6년도에는 만 3~5세 유아의 인터넷 이용률이 51.4%(790천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지속적인 증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2010년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따른 세대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10대 99.9%, 20대 99.9%, 30대 99.3% 젊은층의 인터넷이용률은 거의 100%에 달하고 있으며, 만 3~9세도 85.5%로 이용률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제 더 이상 인터넷

사용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인터넷 활용력이 사회 계층이나 연령 등의 특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면서도 필수적인 능력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유아들의 놀이는 전통적인 실외놀이에서 실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게임을 즐기는 놀이로 변화하고 있으며(이숙희, 2007), 초·중, 청년기의 놀이문화로 인터넷이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강희양, 손정락, 2007). 그리고 인터넷은 유아들에게 즐거운 놀이와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재미, 경쟁, 교제 등의 미래지향적 놀이 문화를 형성하고(한미경, 황해익, 2003), 유아들은 놀이를 통한 학습을 통해 강한 성취욕구, 타인과 협력 및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김승옥, 이경옥, 2005).

인터넷의 과다사용이 모두 중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의 이용실태를 분석한 선행연구(김선우, 2002; 김주연, 2002; 이정숙, 2004)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집단의 30%이상이 게임에 과몰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정자(2002)의 연구에서 연구 대상의 14.4%가 매일 게임을 이용하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강성단(2005)의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의 30.8%가 매일 한 번 이상 인터넷 게임을 사용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유아의 인터넷 게임 과다 사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이숙희(2007)는 만 5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컴퓨터 게임에 심각하게 중독된 수준과 중간수준을 합하면 54.9%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며 해가 갈수록 유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 게임 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게임에 대해 관대하고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게임중독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적 환경이 형성되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인터넷 관련 상담건수가 2003년에는 3,774건에서 2006년에는 51,777건으로 20배가량으로 늘어났

고, 그 중 80%이상이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인한 상담이었다(서울신문, 2007.3.15).

사회적으로도 인터넷 사용에 따른 역기능적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여 이와 관련된 사례가 신문과 방송에서 여러 차례 보도되고 있다(내일신문, 2007.8.31; 중앙일보, 2006.3.19; 매일경제 2006.3.28; 동아일보, 2006.2.10; 전자신문, 2006.3.23; 한겨레, 2006.2.2; 2007.11.8).

유아의 인터넷 안전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실태 보고에 의하면, 유아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역기능 문제는 인터넷 및 게임의 과다사용, 언어 발달, 무계획적인 인터넷 사용, 인터넷 사용 자세, 바이러스 침해, 유해사이트 접속, 신체적 문제, 스팸메일, 무례한 통신 예절,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김승옥, 이정수, 이경, 2007) 이는 유아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문제에 대한 유아교육학자 및 부모의 우려를 현실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급속히 보급되어 온 인터넷 사용은 그것이 갖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아지게 하였으며, 특히 유아교육에서는 유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오고 있다. 발달 초기의 잘못된 인터넷 이용습관은 게임중독, 각종 사이버범죄 등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아의 인터넷 안전에 대해 다양한 변인 연구를 실시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아 인터넷 사용의 특징은 연령에 따라서는 3세 34.0%, 4세 47.0%, 5세 68.7%로 연령이 높을수록, 성에 따라서는 여아(49.8%)보다 남아(53%)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상적 인터넷 이용 현황에서 만 9~19세의 15.2%가 만 20세 이상은 0.1%만이 만 3~5세 시기에 인터넷을 최초 경험하였다는

응답을 보여 연령대가 낮을수록 최초 이용 시기도 낮아지고 있는 특성을 보였다. 그리고 76.7%의 청소년이 초등학교 이전 에 인터넷을 처음 시작한 반면, 성인의 71%는 고등학교 이후 처음 인터넷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시작 시기가 성인보다 약 5~6년 정도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개인의 인터넷 사용 시작 시기가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아기 인터넷 의식이 연령에 따라 어떤 변화의 추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학생의 경우 학년이 낮을수록 정보윤리의식이 높으며(이경아, 2002), 초등학교의 경우도, 학년이 낮을수록 높은 정보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연주, 2002). 김계숙(2004)은 학년이 높을수록 인터넷상에서 바른 맞춤법 사용, 친구에게 ID를 빌려주는 것, 불건전 사이트 접속에 대한 윤리의식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아직 연령에 따른 인터넷 관련 연구들이 많지는 않다. 한기홍(2008)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남녀 고등학생들과 남녀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상이한 변인들의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남녀 고등학생들과 남녀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서 상이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13~35세를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 유형에 따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고한 연구도 있다(김종범, 한종철, 2001). 이 같은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인터넷 사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령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욱이 인터넷 사용 연령이 하향화 되고, 발달 초기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유아기 연령에 따라 인터넷 안전의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 게임 중독에서 성은 가장 보편적으로 다루어지는 개인적 변인이며 인터넷 중독과 상관을 보이는 하나의 변인으로 볼 수 있다(조은정, 2010). 홍승표와 이희주(2007)는 초등학교 대상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인터넷 중독

률이 60%이상으로 여아보다 높게 나왔다고 보고하며, 인터넷의 중독적인 경향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지영(2007)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게임양상과 중독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전체 대상자 250명 중 54명이, 여아는 전체 157명 중 8명이 인터넷 게임 중독성향을 나타내는 집단으로 분류되어 남아가 여아보다 게임 중독성향을 나타내는 집단으로 분류되어 남아가 여아보다 게임 중독성향이 크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좋아하는 게임에 있어서도 남아는 롤플레이팅 게임을 가장 선호하였다며 남아와 여아는 선호하는 게임의 내용에 있어서도 성차가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인터넷 게임 중독을 방지하는 안전교육을 계획할 때 하나의 변인으로 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박지영(2007)은 인터넷 게임 중독의 위험성과 또래관계 질을 살펴본 연구에서 아동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의 위험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관계 질은 하위 변인 중 교제의 즐거움, 도움, 친밀감, 인정, 정서적 안정, 경쟁, 만족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다는 결과를 통해 게임 중독의 위험성에서 성차가 나타났다고 한다.

성별에 따른 정보윤리의식 차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남자보다는 여자가 정보윤리의식이 높다고 보고하였다(오연주, 2002; 이남준, 2003; 이명숙, 2004). 오연주(2002)의 경우, 정보윤리의식 항목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명숙(2004)은 남아가 여아보다 무단 복제한 소프트웨어 사용, 불건전한 채팅 사용, 같은 말을 반복하여 쓰는 도배글 사용, 성인사이트 접속, 내용 없이 제목만 쓰기 등 윤리의식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인터넷 이용자의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성이 과반수인 53.6%를 차지하고 있으면, 여성 인터넷 이용자의 비중은 46.4%로, 만 3세 이상 국민의 성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남성이 83.24% 여성이 72.4%로 약 10%이상의 격차가 나왔다. 만 6세 이상의 이메일과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자의 경우도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만3~9세 어린이 인터넷이용률

을 지역 및 성별로 분석한 결과, 제주 지역 남아의 인터넷이용률이 90.6%로 가장 높았다. 이는 만3~9세 평균 인터넷이용률(85.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그리고 2009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중독진단결과 청소년과 성인 모두 여성보다 남성이 인터넷중독자 수가 많고, 인터넷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이러한 인터넷사용과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는 인터넷안전에 대한 성별의 의식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성별에 따른 의식 차이가 어떤 점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면 대상에 적절한 예방교육의 실시가 가능하여 인터넷 사용의 역기능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아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인격과 자아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더 이상 성인의 고유물이 아니라 유아에게도 자연스러운 생활 환경이 되었다. 이런 인터넷의 일상화로 인해 현실과 상상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아직 혼돈하고 있는 시기에 놓여있는 유아들에게도 바른 인터넷의 사용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유아들이 인터넷을 안심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의 물리적, 인적 조력뿐 아니라 유아 스스로도 인터넷의 위험을 알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사용자의 하향화경향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유아가 정보를 다루는 능동적 구성원으로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인터넷 환경조성 및 교육적 개입은 절실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교육대상의 특징을 고려한 효과적인 인터넷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유아의 연령에 따라 인터넷 안전의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1 연령에 따라 인터넷 안전 의식의 ‘책임’영역은 차이가 있는가?
  - 1-2 연령에 따라 인터넷 안전 의식의 ‘네티켓’영역은 차이가 있는가?
  - 1-3 연령에 따라 인터넷 안전 의식의 ‘과몰입’영역은 차이가 있는가?
  
- 2 유아의 성별에 따라 인터넷 안전의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1 성별에 따라 인터넷 안전 의식의 ‘책임’영역은 차이가 있는가?
  - 2-2 성별에 따라 인터넷 안전 의식의 ‘네티켓’영역은 차이가 있는가?
  - 2-3 성별에 따라 인터넷 안전 의식의 ‘과몰입’영역은 차이가 있는가?

## 3. 용어의 정의

### 1)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의 개념은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 측정도구 개발(김승옥, 2008)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대로 ‘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인터넷 사용에 관련된 의식으로 정보화 사용자로서 유아가 지켜야 할 네티켓과 인터넷에서 제시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판단하여 인터넷 사용에 따른 위험과 사고를 예방하는데 요구되는 의식’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의 인터넷 안전의식은 김승옥(2008)이 개발한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유아와 인터넷 환경

유아의 인터넷 환경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승옥(2002)의 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인터넷 이용률이 64.1%였고, 강성단(2005)의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의 73.8%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어 유아의 인터넷 이용률이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보유한 유치원의 93.7%가 교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고, 65.4%가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컴퓨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옥, 이경옥, 2006). 많은 수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은 만 4세 이상(83.3%)부터 인터넷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만 3세부터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도 16.7%나 조사되었다. 인터넷 활동 운영방법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은 대체로 주 1회 이상(79.4%), 30분 이내(90.6%)에 생활주제와 관련된 인터넷 활동(69.5%)을 하고 있었다(김승옥, 이정수, 이경옥, 2007). 이제는 유아들이 생활하는 가정과 유아교육 현장 모두 필수적으로 인터넷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화되었다(박지영, 이정수, 이경옥, 2006).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되는 정보와 문화는 유아들에게 전혀 다른 소통 양식을 가진 세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환경에서 요구하는 윤리나 의사소통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고 옳고 그름의 가치판단이 능숙하지 못한 유아들의 경우에 그릇된 정보사회 가치관과 태도를 심어주거나 잘못된 습관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아기 인터넷 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유아의 인터넷 사용은 부모(엄마)의 특성 및 인터넷 이용패턴 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었다. 부모(엄마)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유아의 인터

넷 이용률(53.7%)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를 둔 유아의 이용률(25.7%)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장인 부모를 둔 유아가 전업주부의 유아보다 인터넷 이용률이 높으며, 인터넷 이용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인터넷에 만족할수록 초등학교 자녀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 2. 유아의 인터넷 사용 실태와 그에 따른 영향

### 1) 유아의 인터넷 사용실태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변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는 개인의 능력이 강조된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지정하여(정보화촉진기본법, 2001) 교육기관에서 정보통신 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통신교육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의 결과로, 만 6세 이상 국민 중 인터넷 사용자는 2004년에는 30백 67만 명으로 전체의 68.2%, 2006년에는 약 34백 12만 명으로 전체의 74.8%, 2010년에는 36백 18만 명을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0년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0년 5월 현재 만 3~5세 유아의 경우 63%, 약 84만 명의 유아가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강성단, 2005; 김승옥, 2002; 이경옥, 2005; 김승옥, 이경옥, 2007;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현재 초고속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가구는 전체의 98%에 달한다. 덕분에 도시는 물론 농어촌 구석까지 인터넷을 즐길 수 있고 이는 OECD가입

국가 중 디지털기회지수가 1위다(중앙선데이, 2009.7.12).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발표한 2007년 ‘디지털기회지수(Digital Opportunity Index, DOI)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ITU, 2007), 만 3세 이상 국민 77.8%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3-5세 유아들은 99.1%가 가정에서, 3.7%는 타인가정에서, 2.5%는 기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면서(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성장하고 있다.

## 2) 유아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긍정적 영향

인터넷 사용은 동전과 같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서 긍정적인 순기능과 함께 치명적인 역기능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이선희(2007)는 유아 컴퓨터 교육에 대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 그리고 심리 운동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컴퓨터와의 친밀한 접촉을 통해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고, 시각적 변별기술을 촉진할 뿐 아니라 특정한 문제해결 행동을 향상시키고 사고를 개발하는 등의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도규철(2002)은 다른 놀이나 활동에 유능한 유아들보다 컴퓨터 활동에서 숙달된 능력을 가진 유아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청하기 때문에 컴퓨터 활동을 통해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협력학습을 하게 된다. 또 컴퓨터에 친숙한 아동은 덜 친숙한 아동을 도와주는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에 대해 신뢰감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컴퓨터 활동은 다른 놀이보다 협동놀이의 수준을 높게 유도하고, 친사회적인 사고와 수준 높은 사고행동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컴퓨터를 활용한 생활주제 중심 인터넷 탐색활동은 유아의 사회·정서·교사에의 비의존성·상호작용능력·안정감·성취동기·호기심 등이 증가되었다고 한다(허지은, 2004). 박경숙(2005)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컴퓨터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내적통제, 또래와의 상호작용 발달에 호

과가 있고, 정서발달에서는 호기심, 유치원에서의 안전감, 성취동기에 대한 모든 수준을 긍정적으로 변화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유재신(2004)은 유아 컴퓨터 활동과 유아의 읽기 능력 및 읽기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유아의 컴퓨터 활동은 읽기 능력을 증진시킬뿐 아니라, 읽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향상을 가져오며,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한다.

김경철(2002)은 유아들은 컴퓨터보다도 더 많은 손기술이 필요한 장난감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처럼, 컴퓨터와 주변장치를 성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전에는 컴퓨터를 단순히 교수매체로서 소프트웨어 등으로 사용방법이 고정되어 있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요즘은 기존의 정보통신 매체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이 발견 되었고, 이는 교육 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훌륭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인터넷은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정보를 대부분의 경우 누구나 쉽고 빠르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얻을 수 있고, 재변환이 아주 용이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비경제적인 위치에 있는 학습자에게 새로운 학습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볼 수 있다(이영석·이소희, 2001).

허지은(2004)는 교수매체로서의 인터넷의 특성을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인터넷이라는 교수매체는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유아에게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구성주의 실현의 교육적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학습자간에 상호작용하고 협력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인터넷 게임의 긍정성을 지지하는 정화이론(Catharsis theory)은 게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폭력과 공격적인 행동을 행함으로써 대리적 경험을 하게

되므로, 일상생활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감소하게 된다고 본다. 또한 게임을 통해 아동들이 테크놀로지에 친숙하게 되며, 게임이 아동들에게 독립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키워 주며, 손과 눈의 협응력을 발달시켜 준다고 보았다(이소영, 2000).

또한 인터넷은 유아들에게 즐거운 놀이와 풍부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재미와 경쟁, 그리고 여분의 에너지 소모나 교재 등의 놀이 문화를 형성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하미경, 황해익, 2003). 특히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료를 찾고 분석,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며, 놀이를 통한 배움으로 성취 욕구가 강해지고 타인과 협력하며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이소희 외, 2000). 유아에게 인터넷 게임은 과제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기술에 친숙해지도록 도와준다.

### 3) 유아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

이와 같이 인터넷이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력 있는 매체로 부각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로 인한 역기능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의 역기능 문제가 유아의 각 발달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유아들은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이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강신영, 2003).

유아기는 신체와 인지, 정서, 사회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건강한 정서발달과 인격발달을 지향해야 하는 유아기에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가상공간이나 현실공간을 혼동한 폭력적 행동을 유발하고 자기조절력 상실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부적응 문제나 일탈행동을 일으키게 된다. 공격성과 폭력성, 충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건강한 정서발달과 성격형성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충동성은 자기

조절력이 약한 유아들이 더욱 기분 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게 된다(정아란, 2007). 그리고 인터넷을 많이 사용할 경우, 신체활동의 제한으로 인해 폭력적 행동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며 온라인상의 폭력적 행동을 모방하여 현실에서 재현하는 등의 인터넷으로 인한 역기능 행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되고 있다(강신영, 2003; 주영주, 이광희 2001).

즉각적인 피드백이 감각적으로 주어지는 컴퓨터 환경에 오래 접하는 유아들은 사람보다 컴퓨터 환경을 더 편하게 생각하기 쉽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1)에 따르면 유아들이 컴퓨터에 빠져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것이 습관화되면 컴퓨터와 함께 지내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대인접촉 기피증은 원만한 가정생활이나 친구관계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는 능력이 떨어져 올바른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등과 같은 개인적 문제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성인의 크기에 맞게 제작된 가구에 앉아 성인의 손 크기에 제작된 마우스를 이용하여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며, 화면에 눈을 바짝 가까이 대고 게임을 몇 시간씩 하는 유아들은 신체적으로 무리를 받게 되고, 반복성 스트레스 손상 증후군(RSI: Repetitive Strain Injury), 컴퓨터 단말기 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 척추굽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컴퓨터 관련 질환 연구소, 2004).

김승옥, 이정수, 이경옥(2001)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유아들의 인터넷 과몰입에 대한 문제로 친구들과 노는 것 보다 인터넷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거나(64.4%) 또래와 놀이 할 때에도 주로 인터넷을 하고(51.0%), 인터넷을 할 때 흥분하며(44.9%),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장면을 봐도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고(33.7%), 놀이나 대화의 내용이 주로 인터넷 게임과 관련된 것이고(47.8%), 일상생활 중에도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등(38.8%) 인터넷 과몰입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인터넷

과다 사용은 유아의 일상생활 적응력 저하 및 친구, 가족관계 등의 대인 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자아정체성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강신영(2003)은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유아들 중 눈물이 날 때 까지 인터넷을 하고 먹는 것과 화장실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을 자면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하는 사례도 조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정아란(2007)의 연구에서도 밤늦게까지 게임을 해서 다음 날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조는 아이 또 유치원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는 아이 등 심각한 중독 사례가 보고되었다. 그리고 각종 매체에서도 유아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문제들이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다(국민일보, 2010 .3. 8; 내일신문, 2007. 8. 31; 동아일보, 2006. 2. 10; 매일경제, 2006. 3. 28; 문화일보. 2010. 3. 4)

황해익과 동료들(2001)은 사이버 성폭력, 통신언어 오용 및 언어폭력, 개인정보의 오·남용, 통신 사기, 통신도박 등의 역기능을 지적하면서 인터넷의 이용에 있어서 통제력이 없을 경우, 정신적 갈등상태를 경험하게 되므로 유아 컴퓨터 안전교육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신영(2003)은 정보화의 역기능이 유아의 각 발달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며 게임중독, 사이버 성폭력, 언어오용 및 폭력, 개인정보의 오·남용, 유해정보에 노출 등에 유아들이 무방비상태로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인터넷 역기능 문제는 어린 유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데 어린 연령일수록 더욱 심화되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이러한 발달 초기 역기능적 특성이 성인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주연, 2002).

### 3.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

#### 1) 인터넷 정보윤리의식

유아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역기능 문제가 나타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유아의 인터넷 사용 특성 및 발달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사회의 역기능 현상이 초래되는 다양한 원인 중 하나는 인터넷의 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보의 생활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용자 윤리의식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강슬기, 2004). 인터넷 안전의식은 정보화 시대의 인터넷 사용자가 가져야 할 인식이라는 점에서 인터넷 정보윤리의식과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인터넷 정보윤리의식은 인터넷 사용자를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해자이자 역기능 문제의 피해자로 정하고 이에 따른 포괄적인 인터넷 사용의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안전의식은 인터넷 사용자를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발생시키기 보다는 역기능 문제의 피해자 입장에서 인터넷 사용 따른 문제에 대처하는 의식이라는 정의할 수 있다(김승욱, 2008). 따라서 인터넷 안전 개념의식을 살펴보기에 앞서 인터넷 정보윤리에 관한 개념적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병완(2001)은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인간완성(human fulling) 혹은 인간다움(humanmity)를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한다는 도덕의 최고원리는 정보 사회에서도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보 사회에서 인간 완성에 기여할 수 있는 네 가지 도덕적 원칙을 존중, 책임, 정의, 해약금지로 보았다. 존중(respect)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사이버 공간에 탐닉하여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존중은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들을 우리 자신과 똑같은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은 상대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존중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책임(responsibility)은 예상적 책임(prospective responsibility)과 소급적 책임(retrospective responsibil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상적 책임이란 내가 어떤 사건 전에,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혹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과 관계가 있으며, 우리는 누구나 예외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예상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급적 책임이란 내가 그 사건 후에, 한 행위자로서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돌려질 수 있는 사건이나 결과들에 대해 지는 책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보 이용자 및 정보 제공자로서 예상적 책임과 함께 소급적 책임을 갖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의(justice)는 사이버 공간에서 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 비편향성, 완전성, 공정한 표현을 추구해야 하며, 타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해악 금지(non maleficence)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타인의 복지에 대해 배려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사이버 성폭력, 크래킹, 바이러스 유포 등과 같은 행위들은 타인에게 명백하게 해로움을 주는 것이므로 마땅히 지양해야 할 행동이다. 정보기술의 특성상,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도덕적 행동은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구분회, 최무진(2006)은 정보윤리의 기본 원리를 타인존중, 책임감, 건전성, 정보보호로 정하였다. 타인존중은 인터넷 공간에서 타인에 대한 적절한 예절, 책임감은 프로그램 다운로드, ID보호 등에 관한 책임있는 자세, 이용의 건전성은 불건전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기통제, 정보보호는 개인정보보호 및 해킹금지 등에 대한 윤리적 태도라 정의하였다.

김승옥(2008)은 정보윤리의 기본 원리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존

중, 해악금지, 책임, 절제를 들 수 있다. 존중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예절을 의미하고, 책임은 정보의 이용자와 제공자로서 자신의 정보행위에 대한 책임을 말하며, 절제는 불건전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기통제를 과몰입에 대한 자기 의지조절과 인터넷 이용 시 자기 규칙 정도를 의미하고 해악금지 는 타인에 대해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라고 하였다.

## 2) 인터넷에 대한 유아의 인식과 안전의식

인터넷에 대한 유아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 본 연구들에 따르면 인터넷은 복잡한 기술 시스템과 사회적 시스템의 혼합이기 때문에 유아들이 인터넷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비록 탐색은 가능하나 보이지 않고 직접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터넷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연령이 낮을수록 가능하다(Yan, 2005). 또한 인터넷은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찾아서 자신에게 적절한 자료로 각색하는 노력을 해야 하므로 이용자의 의식과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반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만 5, 6세 유아는 인터넷을 해롭지 않은 도구나 장난감으로 인식하거나(Yan, 2005) 인터넷 사용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지켜야 할 예절을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정보가 유해한 것인지에 대한 지식도 충분하지 않아서(박지영, 이정수, 이경옥, 2006) 인터넷 안전에 대해 무감각하다고 할 수 있다(김영주, 2009). 이는 인터넷 경험이 유아들에게 전반적으로 보편화된 반면 인터넷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지니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아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 교육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인터넷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인터넷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최근 유아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역기능 문제가 나타나면서 이에 대처하

기 위해 유아의 인터넷 사용 및 발달 특성을 고려한 ‘유아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김승옥(2008)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사들은 유아들의 인터넷에 대해 올바르게 안전한 의식을 갖고 건강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안전의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유아교육 현장에서 인터넷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것은 유아들이 생활에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여러 영역에서 역기능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아에게 인터넷 안전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유아가 인터넷에 대한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무리 법제도와 기술적 시스템이 개발된다하더라도 개인의 인터넷 안전의식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효율적인 방지책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유아의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며 그것을 위하여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유아의 인터넷 정보 관련 안전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안전 및 안전의식에 대한 개념에 대해 학자들의 뚜렷한 의견이 없기에 인터넷 안전의식을 어떻게 정의하고 개념화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며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승옥(2008)은 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의식으로 정보화 사용자로서 지켜야 할 네티켓 의식과 제시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판단하여 인터넷 사용에 따른 위험과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인터넷 안전의식이라 정의하면서, 인터넷 안전의식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네티켓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인터넷 예절이다. 그리고 책임은 인터넷에서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생각해야 하는 정보이용자로서의 인터넷 사용 행동이다. 마지막으로 과몰입은 감성적 욕구를 이성적으로 제어하고 습관적으로 불건전한 정보를 접촉하게 하는 중독요인에 대한 의지조절과 인터넷 사용 규칙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서울에 공립 유치원 4개원으로 각 유치원은 강서구, 노원구, 동작구에 소재하여 일반적 생활수준이 비슷한 지역이었다. 유아들은 만4세 5학급 유아 114명과 만5세 5학급의 유아 116명, 성비는 남아 125명, 여아 105명으로 총 230명이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구분	n	%	구분	n	%		
연령	만 4세	114	49.6	성별	남아	125	54.3
	만 5세	116	50.4		여아	105	45.7
계	230	100	계	230	100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김승옥(2008)이 개발한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을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유아의 발달 특성상 면접조사법이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작된 도구이다. 또한, 인터넷 안전에 대한 질문 문항의 내용을 유아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보조 자료로 함께 사용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 측정 문항은 면접을 위한 연습 3문항, 인터넷 안전의식 18문

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면접검사도구의 구체적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그림을 활용한 인터넷 안전의식 측정도구 구성

영역	내용	문항수	
연습	인터넷 사용여부, 좋아하는 게임 여부, ID와 비밀번호 용어 경험 여부	3	
인터넷 안전 의식	책임	개인정보보호, 타인정보보호, ID공유, 프로그램 설치, 이야기 진실, 보호자 허락	6
	네티켓	타인 비방, 바른 언어 사용, 타인 존중하는 마음, 거짓말 사용 여부, 익명성	5
	과몰입	인터넷 사용 규칙, 인터넷 사용 계획 여부(시간, 내용), 인터넷 사용 태도(그만하기, 계속하기, 미루기), 인터넷 사용 평가	7
	계	21	

검사도구의 채점은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긍정적 반응(네, 고개를 끄덕임)은 1점, 부정적 반응(아니요, 고개를 가로저음)은 0점의 ○,× 이분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총 18문항으로 점수 범위는 0~18점이다. 이 18개 문항 중 책임영역의 5문항(1, 2, 3, 5, 6)과 네티켓영역의 3문항(8, 9, 11) 과몰입영역의 2문항(17, 18)은 총 10문항이 역채점을 실시해야 하는 문항이다. 역채점 문항은 질문의 답이 부정인 유아가 인터넷 안전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한다. 검사도구 총점의 점수가 낮을수록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이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 검사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69이다.

### 3. 연구 절차

질문지는 면접의 형태로 연구자가 근무하는 곳의 만 4세 1학년과 만 5세 2학급의 총 55명의 유아는 연구자가 질문했다. 그리고 나머지 만 4세 4학급

과 만 5세 3학급은 각 학급의 담임교사가 실시하였다.

### 1) 예비연구

연구자는 만 4세 유아 3명과 만 5세 유아 4명을 대상으로 2010년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는 검사도구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이를 수정·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예비연구를 실시한 결과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유아들이 반문하는 문항이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적었다. 그러나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 측정도구(김승옥, 2008)의 질문보다 보조자료로 사용하는 그림도구의 컬러에 관심을 보이는 유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림도구의 색을 흑백된 것을 사용하여 유아들이 질문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사 소요시간은 유아 1인당 5~8분으로 만 4, 5세 유아들의 집중 수준에 무리가 없었다.

### 2) 평정자 훈련

본 연구에서는 연구 취지와 검사 도구에 관해 연구자가 평정자(교사)에게 직접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교사들에게 직접 문항을 읽어보게 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진 후, 문항 제시 방법, 억양의 조절, 기록 방법 등에 관해 협의하고 보완하였다.

### 3) 본 연구

본 연구는 2010년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유아에게 실시였다. 검사 장소는 각각 교실 내 조용한 장소에서 개별 유아에게 이루어졌다. 유아 1인당

검사 소요시간은 5~8분이다. 인터넷 안전의식 측정 문항과 비슷한 패턴의 연습 문항 3문항을 통해 질문에 대한 응답방법을 익히고, 유아의 인터넷 사용 실태에 대해 간략하게 파악을 한 후 그림을 보조자료로 사용하여 본 문항을 질문했다.

#### 4. 자료 분석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을 측정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첫째, 연구 1에서는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아들의 인터넷 안전의식의 책임, 네티켓, 과몰입 3개 하위영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 2에서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아들의 인터넷 안전의식의 책임, 네티켓, 과몰입 3개 하위영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유아의 인터넷 사용 관련 연구에서 주요 변인으로 생각되는 연령과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인터넷 안전의식을 구성하는 영역별 하위 문항을 통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 세부적인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이러한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유아의 연령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비교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만 5세가(M=13.62)만 4세(M=12.54)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4.00$ ,  $p < .01$ ). 즉, 만 5세 유아들이 만 4세 유아들보다 인터넷 안전의식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령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구분	연령	만 4세		만 5세		t
		M	SD	M	SD	
전체 총점		12.54	2.20	13.62	1.90	-4.00**

\*\*  $p < .01$

#### 1) 책임영역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의 하위 영역 중 책임영역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만 4세=4.04점(SD=1.57), 만 5세=4.61점(SD=1.47)  $t=-2.94^*$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만 5세 유아보다 만 4세 유아보다 인터넷 책임영역에 대한 안전의식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령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책임영역

구분	연령	만 4세		만 5세		t
		M	SD	M	SD	
책임영역 총점		4.04	1.57	4.61	1.47	-2.94*

\*  $p < .05$

유아의 연령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중 책임영역의 총점에서 만 4세에 비해 만 5세 유아들의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과는 책임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문항에 대해 t검증을 실시하여 표 5와 같이 책임영역에서 유아들이 연령별로 차이를 보인 문항을 통해 유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연령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책임영역(하위 문항)

질문(구분)	연령	만 4세		만 5세		t
		M	SD	M	SD	
R1. 인터넷을 하는데 000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 등을 물어보면 알려주어도 되나요?		0.68	0.47	0.72	0.45	-0.66
R2. 인터넷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		0.61	0.49	0.76	0.43	-2.52*
R3. 인터넷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 등을 물어보면 알려주어도 되나요?		0.71	0.46	0.71	0.46	0.06
4.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부모님(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0.79	0.41	0.92	0.27	-2.91**
R5. 인터넷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라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설치해도 되나요?		0.70	0.46	0.78	0.42	-1.28
R6. 인터넷에 있는 이야기는 모두 믿어도 되나요?		0.55	0.5	0.72	0.45	-2.74**

\*  $p < .05$ , \*\*  $p < .01$

먼저, 인터넷 안전의식 중 책임영역에서 ‘인터넷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지에 대해서는 만 5세(M=.74)가 만 4세(M=.61)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2.52, p<.05$ ).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부모님(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에서는 4세(M=.79) 만 5세(M=.92)로 만 5세가 만 4세보다 높은 점수 결과가 나왔다( $t=-2.91, p<.01$ ) ‘인터넷에 있는 이야기는 모두 믿어도 되나요?’에서 만 4세(M=.55) 만 5세(M=.72)로 만 5세가 만 4세보다 유의미한 수준( $t=-2.74, p<.01$ )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왔다.

특히, ‘인터넷에 있는 이야기는 모두 믿어도 되나요?’의 결과는 어린 연령일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모두 진실로 받아들이는 유아기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부모님(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에 대해 만 4세와 만 5세 유아 모두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는 것은 유아들이 평소 부모들에게 인터넷 사용에 대한 통제를 받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더 높은 연령의 유아들의 대부분이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한 것은 인터넷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관심과 제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2) 네티켓영역

유아의 연령에 따라 인터넷 안전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네티켓영역의 총점으로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 4세(M=4.16) 만 5세(M=4.59)로 만 5세가 만 4세에 비해 네티켓영역의 총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4.20, p<.01$ ).

<표 6> 연령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네티켓영역

구분	연령	만 4세		만 5세		t
		M	SD	M	SD	
네티켓영역 총점		4.16	0.9	4.59	0.66	-4.20**

\*\* p < .01

만 4세와 만 5세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 중 네티켓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네티켓영역의 하위 문항에 대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와 같이 연령에 따른 네티켓영역의 하위 문항별 결과를 살펴보면 문항 8, 9, 11에서 만 4세에 비해 만 5세의 평균이 높았다.

<표 7> 연령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네티켓영역(하위 문항)

구분(문항)	연령	만 4세		만 5세		t
		M	SD	M	SD	
7. 인터넷에서 바른 언어 사용과 좋은 말을 사용해야 하나요?		0.85	0.36	0.91	0.3	-1.26
R8. 인터넷에서 서로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나요?		0.82	0.39	0.97	0.16	-4.02**
R9.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을 사용해도 되나요?		0.92	0.27	0.99	0.09	-2.63**
10. 인터넷에서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0.75	0.47	0.80	0.40	-1.01
R11. 인터넷에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0.82	0.38	0.92	0.27	-2.24*

\* p < .05, \*\* p < .01

‘인터넷에서 서로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나요?’ 에서 만 4세=.82점(SD=.39), 만 5세=.97점(SD=.16)로 t=-4.02\*\*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을 사용해도 되나요?’에서는 만 4세=.92점(SD=.27) 만 5세=.99점(SD=.0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63, p

<.01).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에서 만 4세=.82점(SD=.38) 만 5세=.92점(SD=.27)로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2.24, p<.05$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3개 문항은 모두 만 4세보다 만 5세가 네티켓영역에서 인터넷 안전의식 점수가 더 높았다. 특히, 만 5세의 평균점수가 1점 만점에 0.9점 이상으로 아주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높은 연령의 유아들이 더 높은 도덕적 윤리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네티켓 영역의 나머지 2문항에서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 3) 과몰입영역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을 과몰입영역에서 연령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과몰입영역은 책임영역이나 네티켓영역과는 다르게 유아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연령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과몰입영역

구분	연령	만 4세		만 5세		t
		M	SD	M	SD	
과몰입 영역 총점		4.33	0.94	4.41	1.01	-0.63

\*  $p < .05$ , \*\*  $p < .01$

그러나, 과몰입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각 문항에 대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개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9> 연령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과몰입영역(하위 문항)

구분(문항)	연령	만 4세		만 5세		t
		M	SD	M	SD	
12.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하나요?		0.75	0.44	0.72	0.45	0.37
13. 인터넷을 하기 전에 언제까지 할 것인지 시간을 계획해야 하나요?		0.85	0.36	0.88	0.33	-0.63
14. 인터넷을 하기 전에 어떤 내용의 활동을 할 것인지 계획해야 하나요?		0.76	0.43	0.74	0.44	0.38
15.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인터넷이 너무 재미있어서 더 하고 싶어도 그만해야 하나요?		0.80	0.40	0.88	0.33	-1.67
16. 인터넷이 재미있으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지내지 않고 인터넷을 해도 되나요?		0.18	0.39	0.03	0.16	4.02**
R17. 인터넷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어도 되나요?		0.70	0.46	0.91	0.28	-4.21**
R18. 인터넷을 사용한 후에는 계획했던 대로 활동했는지 알아보아야 하나요?		0.29	0.46	0.25	0.44	0.67

\* p < .05, \*\* p < .01

유아의 연령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과몰입영역 중 ‘인터넷이 재미있으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지내지 않고 인터넷을 해도 되나요?’에서 만 4세=.18점(SD=.39), 만5세=.03점(SD=.16)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4.02, p<.01). 이는 김승욱(2008)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 5세가 인터넷 과몰입에 대한 위험을 만 4세 보다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유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인 사회적 발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 4세에게는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의 피해에 대한 인터넷안전교육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인터넷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미루어도 되나요?’에서 만 4세=.70점(SD=.46) 만 5세=.91점(SD=.28)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4.21, p<.01). 이 결과를 통해 만 4세와 만 5세 유아 모두 ‘인터넷을 계속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만 5

세는 만 4세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면서 인터넷을 계속해서 안된다고 응답한 점수가 더 높아 어린 연령보다 행동에 대한 자기조절과 통제에 대한 자의식이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과몰입영역에서 인터넷 활동 계획(활동 규칙, 활동 시간, 활동 내용)과 관련된 결과에서 많은 유아들이 인터넷 사용을 하기 전에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인터넷 사용 후 사전 계획이 실제로 활동에서 잘 이행되었는지 스스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유아의 성별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비교

유아의 성별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총점에 대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에서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0> 성별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구분	연령	만 4세		만 5세		t
		M	SD	M	SD	
전체 총점		12.81	2.32	13.41	1.82	-2.16*

\* p < .05

### 1) 책임영역

유아의 성별에 따라 인터넷 안전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책임영역의 총점으로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남아=4.11점, (SD=1.62), 여아=4.59점(SD=1.41) t=-2.37\*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인터넷

안전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1> 성별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책임영역 총점 t검증

구분	성별	남자		여자		t
		M	SD	M	SD	
책임 영역 총점		4.11	1.62	4.59	1.41	-2.37*

\* p < .05

성별에 따른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이 책임영역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하위 문항별로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성별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책임영역(하위 문항)

구분(문항)	성별	남아		여아		t
		M	SD	M	SD	
R1. 인터넷을 하는데 000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 등을 물어보면 알려주어도 되나요?		0.65	0.48	0.77	0.42	-2.08*
R2. 인터넷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		0.66	0.48	0.71	0.45	-0.95
R3. 인터넷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 등을 물어보면 알려주어도 되나요?		0.68	0.47	0.74	0.44	-1.05
4.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부모님(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0.86	0.34	0.85	0.36	0.35
R5. 인터넷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라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설치해도 되나요?		0.66	0.47	0.83	0.38	-2.94**
R6. 인터넷에 있는 이야기는 모두 믿어도 되나요?		0.60	0.49	0.69	0.47	-1.35

\* p < .05, \*\* p < .01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 책임영역의 하위 문항에서는 연령에서와는 다른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터넷을 하는데 000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 등을 물어보면 알려주어도 되나요?’에 대해 여아

가 남아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쉽게 자신의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인터넷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라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설치해도 되나요?’에서 남아=0.66점(SD=0.47), 여아=0.83점(SD=0.38)  $t=-2.94^{**}$ 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인터넷에서 접하게 되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보다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부모님(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에 대한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연령에 따른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과 같이 다른 문항들에 비해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 유아가 부모(보호자)에 대한 허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2) 네티켓영역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네티켓영역의 총점으로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남아=4.26점, (SD=0.93), 여아=4.51점(SD=0.64)  $t=-2.42^*$ 로 여아가 인터넷 안전의식 네티켓영역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3> 성별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네티켓영역

구분	성별	남자		여자		t
		M	SD	M	SD	
네티켓 영역 총점		4.26	0.93	4.51	0.64	-2.42*

\*  $p < .05$

네티켓영역의 각 문항을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표 14와 같이 1개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네티켓영역에서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에 대한 결과는 성별이나 연령에서 모두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하위 문항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표 14> 성별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네티켓영역(하위 문항)

구분(문항)	성별		여아		t
	남아	SD	M	SD	
7. 인터넷에서 바른 언어 사용과 좋은 말을 사용해야 하나요?	0.86	0.34	0.90	0.31	-0.72
R8. 인터넷에서 서로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나요?	0.87	0.34	0.92	0.27	-1.31
R9.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을 사용해도 되나요?	0.92	0.27	1.00	0.00	-3.28**
10. 인터넷에서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0.76	0.43	0.79	0.41	-0.55
R11. 인터넷에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0.85	0.36	0.90	0.3	-1.31

\*\* p < .01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을 사용해도 되나요?’에서 남아=0.92점(SD=0.27) 여아=1.00점(SD=0.00) t=-3.28\*\*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응답자 모두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대답하였다.

### 3) 과몰입영역

유아의 성별에 따라 인터넷 안전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과몰입영역의 총점으로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성별에 따른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 3개 영역 중 과몰입영역에서도 연령에서처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5> 유아의 성별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과몰입영역

구분	성별	남자		여자		t
		M	SD	M	SD	
과몰입 영역 총점		4.43	1.03	4.30	0.91	0.99

\* p < .05, \*\* p < .01

하지만, 과몰입영역은 다른 두 영역들과 다르게 총점에서 여아들이 남아들의 평균점수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래서 과몰입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각 문항에 대해 t검증을 실시하여 비교해보았더니 표 16과 같이 2개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다.

<표 16> 유아의 성별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 과몰입영역(하위 문항)

구분(문항)	성별	남아		여		t
		M	SD	M	SD	
12.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하나요?		0.72	0.45	0.75	0.43	-0.55
13. 인터넷을 하기 전에 언제까지 할 것인지 시간을 계획해야 하나요?		0.84	0.37	0.90	0.31	-1.24
14. 인터넷을 하기 전에 어떤 내용의 활동을 할 것인지 계획해야 하나요?		0.79	0.41	0.70	0.46	1.51
15.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인터넷이 너무 재미있어서 더 하고 싶어도 그만해야 하나요?		0.91	0.28	0.75	0.43	3.23**
16. 인터넷이 재미있으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지내지 않고 인터넷을 해도 되나요?		0.14	0.35	0.06	0.23	2.23*
R17. 인터넷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어도 되나요?		0.77	0.42	0.86	0.35	-1.74
R18. 인터넷을 사용한 후에는 계획했던 대로 활동했는지 알아보아야 하나요?		0.26	0.44	0.29	0.45	-0.50

\* p < .05, \*\* p < .01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인터넷이 너무 재미있어서 더 하고 싶어도 그만해야 하나요?’에서 남아=.91점(SD=.28) 여아 M=.75점(SD=.43) t=3.23\*\*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 문항의 평균점수를 통해 대부분의 남아가 인터넷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 여아보다 높은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이 재미있으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지내지 않고 인터넷을 해도 되나요?’에서는 연령에 따른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과 같이 성별에서도 다른 문항들에 비해 낮은 평균점수가 결과로 나왔다. 이 문항에서 성별에 따라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을 측정한 결과 남아=.14점(SD=.35) 여아=.06점(SD=.23)  $t=2.23^*$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아와 여아의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난 문항이기는 하지만 남아의 평균점수가 여아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남아들의 인터넷 과몰입 위험성이 여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 과몰입영역의 문항 중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두 문항 모두 남아의 평균점수가 여아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다른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들과 다른 결과다. 이는 유아의 인터넷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여아보다 남아의 비율이 높은 점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V. 결론 및 논의

###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을 비교하고, 인터넷 안전의식의 책임, 네티켓, 과몰입 3개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서 교육대상의 특징을 고려한 효과적인 유아 인터넷 안전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은 전체 총점을 비교한 결과 연령과 성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김승옥(2008)이 유아의 연령에 따라 인터넷 안전의식을 측정된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4세 유아와 만5세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을 3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총점을 유아의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책임영역과 네티켓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과몰입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김승옥(2008)이 만5세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 전체평균과 각 하위요인별 책임, 네티켓, 과몰입의 평균이 모두 만 4세 유아보다 높은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피해 사례 중 과몰입과 관련된 요인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가정 내 부모와 기관 내 교사가 인터넷 안전교육의 내용으로 강조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안전교육의 내용에 인터넷 사용의 책임과 네티켓을 강조한다면 긍정적인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은 연령이 높은 유아가 더 높은 총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인터넷 안전의식과 유사한 정보윤리의식

에 관한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경아(2002)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경우 학년이 낮을수록 정보윤리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도 학년이 낮을수록 높은 정보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연주, 2002). 이는 청소년·아동기와 유아기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충돌이 많이 생기는 청소년·아동기에 비해 유아기는 아직 한 개인의 윤리 의식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이다. 따라서 백지화의 상태로 바르고 옳은 것에 대한 강한 울곧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적 발달단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아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윤리 의식이 견고해지고, 정립되는 시기로 어린 연령에서부터 인터넷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바른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조기 인터넷 안전교육을 통해 인터넷의 순기능을 알고, 역기능의 피해를 분명히 인식한다면 대상에게 적절한 안전교육을 제공한다면 바르게 정보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은 전체 총점을 기준에 따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터넷 게임 이용에 대한 강성단(2004)의 연구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온라인 게임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 평균 이용 시간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정보윤리의식 차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남자보다는 여자가 정보윤리의식이 높다고 보고하였다(오연주, 2002; 이남준, 2003; 이명숙, 2004). 따라서 인터넷 안전교육의 기회와 내용을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면 효과적일 것이다. 즉, 남아가 인터넷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배려가 교육 실시 이전단계에서부터 필요할 것이다.

둘째,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인터넷 안전의식 책임, 네티켓, 과몰입 영역의 각 문항별로 비교한 결과 차이를 보이는 문항이 일치되지 않은 특성을 보였다.

먼저, 연령에 따라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의 책임영역의 결과를 문항별

로 비교하였더니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에 대한 문항과,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부모님(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항, 인터넷에 있는 이야기는 모두 믿어도 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만5세 유아가 만4세 유아에 비해 인터넷 안전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및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유아들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들이 개인정보의 소중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박지영, 이정수, 이경옥, 2006). 선행연구에서는 만 5세 연령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연령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지 못하였다. 어린 연령의 유아에게 인터넷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정보유출의 피해를 알 수 있는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강조하면 인터넷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부모님(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항의 결과에서 연령별 차이뿐 아니라 두 연령 모두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대부분의 유아들이 인터넷 사용 시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할 때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아기 부모 의존도를 통해 평소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적당한 인터넷에 대한 안전의식이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에 영향을 끼쳤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행동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영옥 외, 2008)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 지지된다. 특히 부모가 인터넷에 만족할수록 유아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된 김병구(2007)의 보고는 부모의 인식이 유아의 인터넷 이용시간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안전교육을 유아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함께 적절히 제공되는 것은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네티켓영역에서 만 5세 유아들 보다 만 4세 유아들이 인터넷에서 서로 얼

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고,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을 사용해도 된다는 네티켓영역 내 다른 문항들에 비해 낮은 평균점수가 나왔다. 또 인터넷에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만 4세가 만 5세보다 높은 인터넷 안전의식을 갖고 있다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만 5세가 만 4세에 비해 인터넷 이용기간이 길고, 그 결과 인터넷의 가상 세계의 허구에 익숙해지면서 진실에 대한 가치와 현실에서 거짓이 발생시키는 역기능에 대해 무더진 이유라고 생각된다. 인터넷 교육은 인터넷을 처음 사용하게 되는 유아가 인터넷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그 기능을 선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는 인터넷 상의 예절교육인 네티켓 지도를 유아기부터 생활 습관의 한 영역으로 지도하여 유아가 바른 사용자가 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타인과 자신에 대한 존중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인터넷 안전의식 교육내용이 어린 연령의 유아들에게 더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과몰입영역에서는 만4세와 만5세의 총점만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영역을 구성하는 문항별 분석을 통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연령이 달랐다. 만5세는 인터넷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의식이 만 4세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인터넷이 재미있으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지내지 않고 인터넷을 해도 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만4세 유아들이 만5세에 비해 높은 점수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안전 및 과몰입 예방 교육에서 유아의 연령에 따라 강조되어야 할 내용이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유아기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갖추어야 할 인격의 기초가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이다. 따라서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유아가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성 발달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어린 연령의 유아들은 자신의 감정에 미숙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스스로 내리기 어려우므로 유아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인터넷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3개 하위 영역을 문항별로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이 나타났다.

먼저, 책임영역 내 문항에서 남아보다 여아가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 등을 물어보면 알려주어도 되는지에 대해 높은 점수가 나왔다. 이는 남자 유아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이 여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리는 것이 되어 유아의 신변 안전까지 위협 등 다른 위협 상황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유출되지 않게 하고,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유의한 차이가 결과로 나타난 다른 문항에서는 남아들이 인터넷을 할 때 새로운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 스스로 설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답변한 평균점수가 여아들 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기계나 도구를 조작하면서 문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모험심으로 도전하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해결하거나 간과해버리는 태도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남아들에게는 인터넷 사용 시 꼭 필요하지 않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오작동, 해킹 등의 위험성에 대해 안전 교육 프로그램 내용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네티켓영역에서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을 사용해도 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서만 유아들의 차이가 나타났다. 남아보다 여아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아 응답자 전원이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평소 놀이 중 가작화 활동을 통해 감정이입의 경험이 보다 풍부하여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조망수용능력이 발달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남아용 인터넷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

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예절교육의 일환으로 네티켓교육이 기본생활습관과 연계되거나 인성교육과 함께 이루어지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 과몰입영역 총점을 성별에 따라 비교했더니 연령에서와 같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남아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인터넷이 너무 재미있어서 더 하고 싶어도 그만 해야 하는지 묻는 문항에 여아들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상당수의 유아들이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유아가 만 4세부터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기 시작한다(강성단, 2004). 인터넷 과몰입의 피해를 대표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중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에서 성차가 나타난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게임 중독 경향성에서 성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박지영(2007)은 컴퓨터 이용기간에 있어서 남아가 여아보다 먼저 시작했고, 매일 하는 비율도 남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인터넷 게임에 남아가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노출된 시간이 길수록 인터넷 게임 중독 경향성이 높아 성차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송숙자와 심화옥(2003)은 인터넷 게임 중독에서 성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게임의 내용에 있어 남아가 일반적으로 활동적이고 폭력적인 것을 여아보다 더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경남(2004)도 남아가 여아보다 인터넷 게임 중독 경향성이 높게 나타난 이유를 게임 내용에 대한 남아와 여아의 관심과 선호정도의 차이에서 찾았다.

인터넷이 재미있으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지내지 않고 인터넷을 계속해도 된다고 답한 남아들의 수가 많았다. 조은정(2010)은 인터넷 게임 중독 경향성과 정서조절이 부적 상관을 보인 결과를 통해 적절히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고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 일시적인 욕구나 행동을 제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조절능력의 발달이 인터넷 게임 중독 경향성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유아용 인터넷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개발에서도 반영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는 유아가 자기조절능력을 발달단계에 맞춰 정상적으로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특별히 인터넷 과몰입 경향성을 보이는 유아를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에 따른 자기 조절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전략과 같은 방안을 치료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인터넷 안전의식 3개 영역을 문항별 분석을 한 결과 책임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이 일치하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네티켓영역에서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을 사용해도 되는지 묻는 문항이, 과몰입영역에서는 인터넷이 재미있으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지내지 않고 인터넷을 해도 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서 연령과 성별에 있어 공통적으로 차이가 있는 문항이 있었다. 따라서 유아가 인터넷 안전의식에 있어 연령과 성별에 따라 모두 차이가 나타난 문항에 대해서는 유아용 인터넷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 조망수용능력과 자기조절력을 신장할 수 있는 활동을 반영한다면 인터넷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은 차이가 있었다.

둘째, 연령에 따른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은 책임영역과 네티켓영역에서는 만 5세가 만 4세보다 더 높은 인터넷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과몰입 영역은 세부 문항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성별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은 책임영역과 네티켓영역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인터넷 안전의식을 갖고 있었다. 과몰입 영역에서는 세부 문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에 있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유아들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인터넷 안전의식의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에 사는 유아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인터넷 안전의식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만 4세와 만 5세 유아들로 인터넷 사용 연령이 하향화 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만 3세 유아들을 참여시켜 다양한 연령의 인터넷 안전의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연구대상이 중류 계층에 한정되었고, 비교적 인터넷 사용 환경인 안정적인 집단이었다.-사회적 계층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일 수 있음)

셋째, 유아들의 인터넷 안전에 대한 교육이 가정과 유치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경험의 유무를 조사 전에 고려하지 못하였다.

넷째, 유아들의 인터넷 안전의식을 측정 비교한 결과 성별이나 연령의 차이보다는 인적환경에 대한 특성이 반영된 결과가 나타났다. 유아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가정 내 부모변인과 유치원 내 교사변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다섯째, 유아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장소는 가정이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인터넷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시간을 집에서 컴퓨터와 함께 보내는 가정에서의 인터넷 안전교육도 중요하다. 따라서 유아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안전의식을 유아의 연령과 성별을 기준으로 비교, 논의함으로써 유아들의 인터넷 안전의식 수준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인터넷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후에는 유

아들의 인터넷 안전의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다양화하여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인터넷 사용 연령이 하향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만 3세 유아들의 인터넷 안전의식도 연구하여 유아기 인터넷 안전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을 기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의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을 비교한 것 뿐 아니라 구체적인 컴퓨터 안전교육 내용과 방법에 관한 개발과 평가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강성단 (2005). 만 5세 유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실태 및 게임의 적절성 평가.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신영 (2003). 유아정보화 역기능 극복 방안에 관한 고찰. **유아교육논집**, 11, pp.57~58
- 강희양, 손정락 (2007). 인터넷 및 게임 중독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 분석. **한국 심리학회지: 건강**, 12(4), pp.733-744
- 교육부 (1995). *유치원 교사를 위한 컴퓨터 교육 자료*. 서울: 교육부
- 교육부 (1998).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미디어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요!**.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국민일보 (2010.3.8). 인터넷 중독 우리 아이, 육에 폭력까지?
- 김경철, 전지영 (2000). 유치원 교육에서 웹 활용방안. **유아교육연구**, 5(2), pp. 129-148.
- 김계숙 (2004).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정보통신 윤리의식 실태조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정, 박은주, 김선우 (2007). 연령에 따른 유아의 전자미디어 이용 관련 현황과 어머니의 인식 차이. **유아교육학논집**, 11(4), pp.247-268
- 김복순 (2007). 유치원교사의 유아교육관령 인터넷 활용에 대한 인식 및 실태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우 (2002). 인터넷 중독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소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승옥 (2002). 가정에서의 유아 컴퓨터 활동에 대한 현황조사 -어머니를 대상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승옥, 이경옥 (2005). 유아교육기관의 온라인 콘텐츠 사용실태 및 요구. **한국 어린이미디어학회. 어린이미디어연구**, 4(12), pp.223-241
- 김승옥, 이정수, 이경옥 (2007). 인터넷 안전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인터넷 안전 교육 실태. **한국교원교육학회 제 50차 학술대회. 교원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pp.227-231
- 김승옥 (2008).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 측정도구 개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옥, 홍지명, 김세루, 김권일 (2008). 유아교육기관의 부모상담 현황 및 교사와 부모의 요구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2(1).
- 김영주 (2009). 인터넷 안전교육에 관한 유아기 어머니의 인식.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pp.397-414
- 김중범, 한종철(2001).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특성 연구-자존감, 공격성, 외로움, 우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pp.207-219.
- 김주연 (2002).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경향과 관련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원 (2002). 안전의식 측정 척도 개발 연구-서울시 일부 중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내일신문 (2007.8.31). 인터넷 중독 유아도 심각
- 동아일보 (2006.2.10). 유치원 꼬맹이가 인터넷에 빠졌어요
- 도규철 (2002). 협력적 컴퓨터 활동이 유아의 사회성과 사회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매일경제 (2006.3.28). 자녀 위해 유해사이트 꼭 차단!
- 문화일보 (2010.3.4). 게임중독 中17세, PC방 가려 콩팥까지 팔아
- 박지영, 이정수, 이경옥 (2006). 만 5세 유아의 인터넷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2, pp.145-166
- 박지영 (2007). 성별과 게임유형에 따른 초등학생 게임 중독의 양상.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경숙(2005)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활동이 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14(1), pp.223-226
- 서승연, 이영호 (2007). 일상적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몰두 성향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pp.391-405
- 서울신문 (2007.3.15). 인터넷 중독 상담 5년 새 20배 폭증
- 송숙자, 심희옥 (2003). 아동의 컴퓨터 게임 몰두 성향과 심리사회 및 행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4(5), pp.27-41
- 신효미, 유미숙, 조유진 (2007).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8(6), pp.233-247
- 오연주 (2002). 초등학교 학생의 정보통신윤리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교

- 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구종 (2001). **유아를 위한 컴퓨터 교육**. 서울: 창지사
- 유재신 (2004). 유아컴퓨터 활동이 유아의 읽기 능력 및 읽기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님 (2004).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아동의 게임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4), pp.99-118
- 이경아(2000). 중학교 학생의 정보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옥(2005). 조기 인터넷 윤리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사이버공간에서 우리 자녀 지키기 포럼 자료**, pp.36-48.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이경옥, 김민화, 김승옥, 김혜수 (2006). 유·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척도 개발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연구보고**, pp. 6-15.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이남준 (2003). 농촌지역 중학교 학생의 정보통신윤리 의식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정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명숙 (2004). 초등학생의 정보통신 활용에서의 일탈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혜 (2007). 가정에서의 유아 컴퓨터 활동과 독서활동-대구지역 부모의 인식 및 참여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소희 외 (1997). **부모가 알아야 할 자녀의 인터넷 교육**. 서울: 동문사
- 이소영 (2000). 게임의 중독적 사용이 청소년의 문제해결 능력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소희 회 (2001). **유아교육기관에서의 Web프로젝트 접근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케이앤비
- 이송아 (2003).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통신 윤리의식 실태에 관한 연구-익명성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숙희, 강병재 (2002). 협력적 컴퓨터 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9(3), pp.181-208.
- 이숙희 (2007). 컴퓨터 게임 중독 수준에 따른 유아의 도덕적 판단 및 유아 발달 수준의 차이. **아동학회지**, 16(4), pp. 33-44
- 이순형, 이경옥 (2007). **유아를 위한 바른 인터넷 첫걸음**. 서울: 한국정보문화

원

- 이정숙 (2004). 초등학생의 인터넷 과다사용과 공격성 및 충동성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추진 (2007). 초등학교 저학년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유형에 따른 공격성과 자기통제력에서의 차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상수 (2003). 왜 정보사회에서도 윤리를 논하는가? **철학과 현실**, 59, pp.75-182
- 전자신문 (2005.5.30). 한국,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OECD 보고서
- 전자신문 (2006.3.23). '인터넷 윤리포럼'좌담회; 인터넷 윤리과제 현황과 과제
- 조경자 (2002). 유아의 전자게임 이용과 사회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2)
- 조은주 (2010). 유아의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과 정서조절 및 공격성.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보화촉진기본법 (2001). 정보화촉진기본법
- 정아란 (2007). 유아의 컴퓨터 게임 과몰입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아란, 엄기영 (2006). 만5세 유아의 컴퓨터게임 이용 실태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pp.89-114
- 주정순 (2004).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및 정보통신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중앙선데이 (2009.7.12). 정보화 수준 가늠...스웨덴 1위, 한국 2위
- 중앙일보 (2006.3.19). [우리 아이 어떡해요!] 코쿤 키드
- 추병완 (2001). **정보윤리 교육론**. 서울: 울력
- \_\_\_\_\_ (2003). 사이버윤리교육의 새로운 접근 모색.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12, pp.133-163
- 최경미 (2005). 부모의 안전의식과 유아기 자녀의 안전지각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컴퓨터 관련 질환 연구소 (2004). **컴퓨터 때문에 아픈건가요?**. 서울: 군자출판사
- 한정아 (2010). 놀이를 활용한 유아 인터넷 과몰입 예방프로그램이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 자기조절력 및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겨레 (2006.2.2). 인터넷에 빠진 아이들...3-5살 절반이 네티즌  
(2007.11.8). 세 살 컴퓨터 버릇 평생 간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6). **2006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  
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인터넷이슈 기획분석**.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201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  
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인터넷중독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기홍 (2008).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미경, 황해익 (2003). 유치원 교사와 어머니의 유아교육 관련 인터넷 사이트  
에 대한 인식 및 활용 실태. **유아교육논집**, 12, 215-235
- 황주성, 유지연 (2007). 인터넷 활용의 변화 양상과 요인 분석-2002년과 2005  
년 한국 네티즌에 대한 조사결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14(1), 19-43
- 허지은 (2004). 생활주제 중심 인터넷 탐색활동이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혜경 (2002). 유아교수매체로서의 인터넷 활용에 관한 이론적 탐색. **유아교  
육학 연구**, 6(2), pp.93-113.
- 황해익 외 (2001). **인터넷과 유아교육**. 서울: 창지사
- ITU(2007), The Digital Opportunity Index(DOI) 2007. <http://www.itu.int>.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06). *The internet and your family*.  
<http://www.aap.org>.
- Becker, K(2005). How are games educational? Learning theories embodied  
in games. Proceedings of DiGRA 2005 Changing views: Worlds in  
play International Conference, Vancouver, Canada
- Mann, D., & Sutton, M.(1998). Net crime: More change in the organization  
of thieving.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8(2), pp.201-239
- Safekids(2006). Kids Rules for Online Safety. [www.safekids.com/kidsrules](http://www.safekids.com/kidsrules)
- Yan, Z.(2005). Age differences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complexity of the Internet.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6,  
pp.385-396.

## ABSTRACT

###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Internet Safety

Ra, Mi Hye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s what are the differences in the child's internet safety awareness by age and gender. This essay is aimed at suggesting basic data to have effective internet safety educa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ts target in the situation of increased internet users from early childhood due to expansion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According to such research aims, this essay set the research following questions.

1: What are the differences in the internet safety awareness by age of children?

1-1. Is there any differences in the 'responsibility' field of internet safety awareness by age of children?

1-2. Is there any differences in the 'netiquette' field of internet safety awareness by age of children?

1-3. Is there any differences in the over-immersion of internet safety awareness by age of children?

2: What are the differences in the internet safety awareness by gender of children?

2-1. Is there any differences in the 'responsibility' field of internet safety

awareness by gender of children?

2-2. Is there any differences in the 'netiquette' field of internet safety awareness by gender of children?

2-3. Is there any differences in the over-immersion of internet safety awareness by gender of children?

This research targets for 230 children of 5 classes for 4-year old and 5 classes for 5-year old from 4 public kindergartens in Seoul. The tool to examine internet safety awareness is individual interview using the picture tool about internet safety of Kim Seungok (2008) by researcher and home room teachers of each class. The preliminary research was conducted for three 4-year-old children and four 5-year-old children from 10th of June 2010 to 12th of June 2010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search methods, timeliness, and problems in interview, and the research was conducted from 23rd of June to 7th of July 2010 after supplementing the issues in preliminary research.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summarized as follow.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in the children's internet safety by age and gender.

Firstly, as the result of that it is examined how different is the internet safety awareness of children by age in its sub-fiel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 in following questions.

The five-year old children have higher internet safety awareness than four-year old children in the responsibility field such sharing internet ID and password with other people, the need of parent (guardian) permission when they join in the internet sites, and belief in the story on internet.

Also, five-year old children have higher internet safety awareness than four-year old children in the netiquette field such as acting to other people as they like because they cannot see each other on internet, using unpleasant words on interne, and telling the story which is not true on interne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4-year old and 5-year old children in over-immersion, but difference in the analysis of questions. Namely, 5-year old children have higher internet safety awareness in the delaying what they ought to do because of internet, and 4-year old children have higher internet awareness than 5-year old children in the question that asks about doing internet without living with friends or family if it is fun.

Secondly, as the result of that it is examined how different is the internet safety awareness of children by gender in its sub-fiel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 in following questions.

Girls have higher internet safety awareness than boys in significant level in the responsibility field such as informing their name, age, telephone number, and address when they are asked on the internet and installation of new certain program when it is alarmed on the internet.

Girls have significantly higher internet safety awareness than boys only in the question asking about using unpleasant words on internet in the netiquette field.

In the over-immersion,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gender; however, there is difference in the some sub-questions. Girls have higher internet safety awareness than boys in the questions asking about stopping internet in the fixed time if they want more, and about doing internet without living with friends and family if it is fun.

인터넷 안전의식 측정 면접 기록지

검사일자: 년 월 일

반 이름: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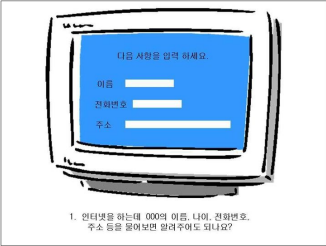
성명: (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 년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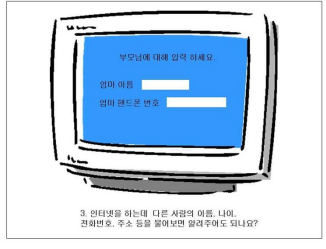
	질문문항	유아의 응답		비고
		○	×	
연 습	인터넷을 사용하나요?			
	특별히 좋아하는 인터넷 게임이 있나요?			
	ID나 비밀번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질문문항	유아의 응답		비고
		○	×	
책 입	1. 인터넷을 하는데 000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 등을 물어 보면 알려주어도 되나요?			
	2. 인터넷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			
	3. 인터넷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 등을 물어보면 알려주어도 되나요?			
	4.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부모님(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5. 인터넷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라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설치해도 되나요?			
	6. 인터넷에 있는 이야기는 모두 믿어도 되나요?			
넷 티 켓	7. 인터넷에서 바른 언어 사용과 좋은 말을 사용해야 하나요?			
	8. 인터넷에서 서로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나요?			
	9.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을 사용해도 되나요?			
	10. 인터넷에서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과 물 입	11. 인터넷에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12.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하나요?			
	13. 인터넷을 하기 전에 언제까지 할 것인지 시간을 계획해야 하나요?			
	14. 인터넷을 하기 전에 어떤 내용의 활동을 할 것인지 계획해야 하나요?			
	15.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인터넷이 너무 재미있어서 더 하고 싶어도 그만해야 하나요?			
	16. 인터넷이 재미있으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지내지 않고 인터넷을 해도 되나요?			
	17. 인터넷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어도 되나요?			
	18. 인터넷을 사용한 후에는 계획했던 대로 활동했는지 알아보아야 하나요?			
총 계				


부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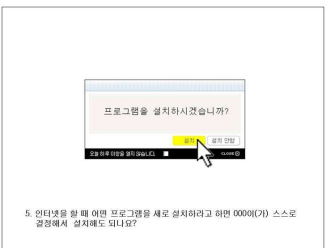
<남아용-인터넷 안전 의식 측정 그림검사도구>


1. 


1. 인터넷을 하는데 000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 등을 물어보면 알려주어도 되나요?
2. 


2. 인터넷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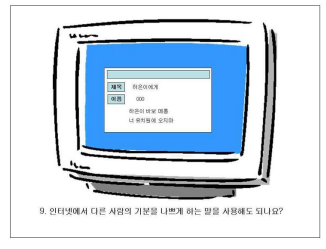
3. 인터넷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 등을 물어보면 알려주어도 되나요?
4. 


4.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부모님(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5. 

5. 인터넷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라고 하면 0000(가) 스스로 결정해서 설치해도 되나요?
6. 

6. 인터넷에 있는 이야기는 모두 믿을 수 있나요?
7. 

7.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과 같은 일을 사용해도 하나요?
8. 

8. 인터넷에서 서로 얼굴에 보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나요?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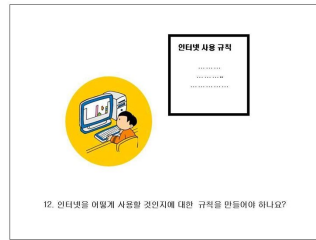
9.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나쁘게 하는 말을 사용해도 되나요?
10. 

10. 인터넷에서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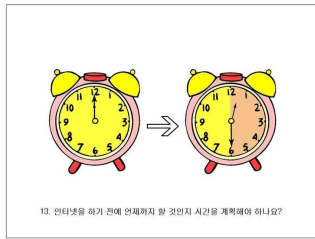
11.



12.



13.



1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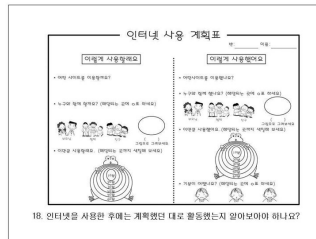
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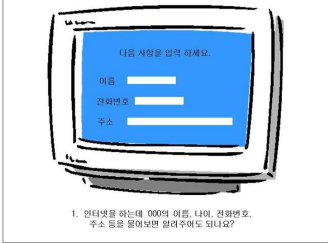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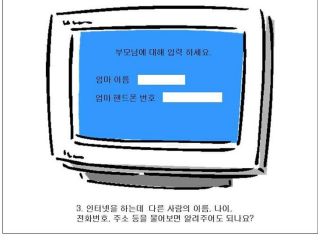



부록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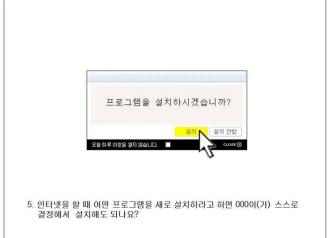
<여아용-인터넷 안전 의식 측정 그림검사도구>


1. 


1. 인터넷을 하는데 000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 등을 물어보면 알려주어도 되나요?
2. 


2. 인터넷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
3. 


3. 인터넷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 등을 물어보면 알려주어도 되나요?
4. 


4.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부모님(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5. 

5. 인터넷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라고 하면 000(가) 스스로 결정해서 설치해도 되나요?
6. 

6. 인터넷에 있는 이야기는 모두 믿을 수 있나요?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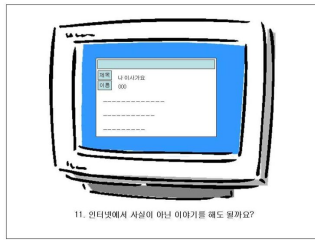
7. 인터넷에서 배운 연애와 좋은 말은 사실에 하나요?
8. 

8. 인터넷에서 서로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나요?
9. 

9.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거품을 나쁘게 하는 말을 시청해도 되나요?
10. 

10. 인터넷에서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마음을 거저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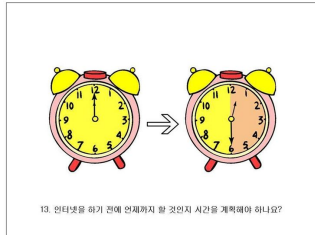
11.



12.



13.



14.



15.



16.



17.



18.

